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나훔-

## 피의 성

(나훔 3장 1 - 19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나훔 선지자는 본문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계 18:2) 니스웨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화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19장에서는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이것은 땅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니까 하늘의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스웨의 멸망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고,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 1. 니스웨의 죄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1절).

니스웨의 대표적인 죄는 폭력입니다. 니스웨는 나훔 선지자가 피의 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람을 많이 죽인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니스웨가 할라이 병정 600명을 칼로 목을 찢고 3천명의 포로를 불에 태워 죽였으며 앗슈루나피루팔이라는 왕은 수르 추장의 피부로 베갯잇을 만들었고 그의 몸의 남은 것으로 베갯속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니스웨의 또 다른 죄는 속임수와 약탈이었습니다. 니스웨는 생산이 없는 소비 도시로 순전히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을 해서 연락을 꺾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웃 나라의 은과 금을 노략하여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습니다(2,9).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4절).

마술은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음행까지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니스웨의 대적자가 되시어 멸망시키셨습니다.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5절).

니스웨는 여인이 강간 당하는 수치를 당하듯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망하되 수치를 당하면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 2. 노아몬처럼

“네가 여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8절).

노아몬은 히브리어로 노아몬이라고 읽는데 앗슈르 사람들에게는 니브라고 읽혀지고, 헬라이어로는 디오스폴리스(The city of Zeus)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데베라고 읽는데 데베는 오늘날 나일강 동편에 위치한 카르나트와 룩소를 말하는데 바로 이곳을 노아몬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아몬은 정치적인 명성은 물론이고 방어벽이 대단했습니다. 나일강이 바로 앞에 가로 놓여있고 티그리스 강은 니스웨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노아몬은 입지 조건이 좋아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전한 요새로 자기 자랑이 대단한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노아몬이 망할 즈음에 애굽은 구스의 통치하에 있었고, 붓(리비아)과 루빔은 나일강 상류에 인접한 국가들로 서로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아몬을 도왔으니 노아몬

이 얼마나 세력을 떨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몬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 노아몬도 망했는데 니스웨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노아몬 보다 어찌 낫겠느냐. 노아몬도 망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인간이 쌓아놓은 철옹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힘이 없어 무너질 뿐입니다.

### 3.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14절).

나훔 선지자들은 이들이 방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라고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물을 길어 강을 만들고, 산성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벽돌로 튼튼하게 벽을 쌓아도 인간의 노력은 모두가 쓸데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기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다”(15절).

백성의 수가 느치 같이 메뚜기 같이 많다 할지라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시면 그 많은 백성들도 속수무책으로 무

너지게 됩니다.

많은 상인들이 수고하여 장사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다 날라갈 것입니다(16절). 군대도 관리도 그 수가 많지만 메뚜기 같이 중국에는 감춰지게 될 것이고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나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나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앗슈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18절).

목자는 지도자, 귀족은 모사(counselor)를 말하는데 이들이 누워 쉰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망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요나가 니스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스웨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목을 곤게 하고 버티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끈은 목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벧후 1:10).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10:22).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사명자 대회 조직 확정

## 10월5일(주) - 11월 23일(주) 50일간

지난 주 순례자를 통해 2003 사명자 대회 주제와 표어 등을 발표한 교회는 조직을 확정 짓고 오늘 자 순례자에 발표한다. 사명자 대회 세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회장:** 이종윤 목사      **본부장:** 왕경래 장로  
**지도:** 김운호 목사

**실행위원:** 민순구 임상현 전기섭 최학인 황정옥 박두영 오형철  
김영주 신용식 이남성 임옥균 조동완 양춘경  
교구 간사 권사회 임원

### † 진영분과†

**책임:** 하영수 장로      **진영:** 오광환 집사  
**실행위원:** 정병무 김영준 박두호 최형철  
**통계:** 서춘식 집사      **실행위원:** 우지원 이양길 김현정  
**발송:** 박현영 집사      **실행위원:** 이난화 서중숙 안병덕  
박순복 최미경 박중숙 석상화 장효정 이미연

### † 홍보분과†

**책임:** 노송성 장로      **총무:** 김규태 집사  
**실행위원:** 이완형 홍성주 김세재 서춘식 장동호 김형택  
각 남순교회 여전도회 홍보부장

### † 전도분과†

**책임:** 김광신 장로      **총무:** 김은태 집사  
**실행위원:** 김태기 이영기 이변생 이관규 이동만 최소희  
김금준 이순희 박이선 심명숙 각 남순교회 · 여전도회 회장단

### † 기도분과†

**책임:** 윤찬오 장로      **총무:** 조정식 집사

### † 교육분과†

**책임:** 노문환 장로      **총무:** 송인권 집사  
**유아부:** 박금실 전용순 오영숙      **유치부:** 이규정 남태순 박창희  
**유년부:** 조대영 신용식 최양진      **초등부:** 김희정 오정수 김시환  
**중등부:** 윤영국 노문환 이태원      **고등부:** 오정식 오광환 박병수  
**대학부:** 서명철 이학주 손태기      **청년부:** 이태훈 최차순 이인숙  
**새가족부:** 지혜영 김세재 김준근      **신혼가정부:** 이규경 이완형 이동만  
**사랑부:** 이상득 이상우 김현영      **에비디부:** 임규현 홍성주 안인호  
**장년부:** 이용식 이남성 이영조      **한상은:** 김인수 손병석  
김운호 황정옥 윤성남      서명철 김영주 장양일  
박두영 이재운

### † 안내분과†

**책임:** 상준경 장로      **총무:** 이복규 장로  
**실행위원:** 임훈규 박정선 한길동 이계홍 양인수 최광성

### † 재정분과†

**책임:** 오정수 장로      **총무:** 조정식 집사      **실행위원:** 오유식

## 제36회 메시아 합동 연주회 준비위원회 조직되다

날짜	시간	비고
10.14(화)	19:30	서울교회
10.18(토)	16:00	영락교회
10.21(화)	19:30	서울교회
10.25(토)	16:00	영락교회
10.28(화)	19:30	서울교회
11. 1(토)	16:00	영락교회
11. 4(화)	19:30	서울교회
11. 8(토)	16:00	영락교회
11.11(화)	19:30	서울교회
11.15(토)	16:00	영락교회
11.18(화)	19:30	서울교회
11.22(토)	16:00	영락교회
11.25(화)	19:30	서울교회
11.29(토)	16:00	영락교회
12. 2(화)	19:30	서울교회
12. 6(토)	16:00	영락교회
12. 9(화)	19:30	서울교회
12.13(토)	16:00	시향 오케스트라 홀
12.15(월)	19:30	올림픽 홀(리허설)
12.16(화)	14:00	올림픽 홀(리허설)

오는 12월 중에 있을 제36회 메시아 합동 연주회를 우리교회가 주관하게 되어 연초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오던 준비 모임이 가을을 맞이하며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 갔다. 준비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편 메시아 합동 연습은 좌편의 일정에 따라 서울교회와 영락교회 2곳에서 번갈아가며 갖게 된다.

### ▶ 임원진

- **고문:** 윤영국 목사, 이용선 장로
- **위원장:** 임상현 장로
- **부위원장:** 박두호, 김영준, 민순구, 하영수, 이관규 장로, 박옥옥 권사
- **음악위원:** 임훈규 장로, 박정선, 허희철, 박경자, 서희숙, 강민희 집사
- **총무부:** 부장/백수남      **차장/이태원**      **총무/윤성남**
- **연주부:** 부장/김형택      **차장/김성준**      **총무/오승민**
- **재정부:** 부장/송인권      **차장/김금준**      **총무/최양진**
- **섭외부:** 부장/탁경준      **차장/이동만**      **총무/김훈**
- **홍보부:** 부장/김규태      **차장/조철기**      **총무/허숙**
- **봉사부:** 부장/김정희      **차장/황노전**      **총무/이영자**

### ▶ 부원

- **총무부:** 박경우, 장두현, 김원웅, 차도훈
- **연주부:** 예완식, 류기찬, 강낙훈, 김도훈
- **재정부:** 유형석, 김영철
- **섭외부:** 양춘경, 이강인, 신원철
- **홍보부:** 정인주, 김은희
- **봉사부:** 여전도회 및 청년부 회원

· 간사: 최형열

## 오르가니스트 네 분 초빙키로 하다

지난 19일 KLAIS회사로 부터 완공한 오르간 열쇠를 받은 우리 교회는 지원서를 제출한 오르가니스트들을 대상으로 23일 면접을 실시하고 네 분의 오르가니스트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네 분의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다음주일부터 봉사한다. 1부예배는 이상미선생, 2부예배는 오자경 교수, 3부 예배는 이상심 박사, 찬양예배는 오신옥 선생이 각각 맡는다.



**오자경 박사**  
· 1960년생  
· 한양대 음대  
· 연세대 음대 대학원  
· 미국 카톨릭대 석사, 미  
시칸대 음악박사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상미선생**  
· 1970년생  
· 이화여대 음대  
· 독일 Staatlichen  
Hochschule, Leipzig  
Konzertexamen 졸업  
· 현 고신대, 한세대 강사



**이상심 박사**  
· 1961년생  
· 서울신대 교회음악과, 동  
대학원, 미국 맨하탄 음대  
박사  
· 현 서울신대, 한세대 강사



**오신옥 선생**  
· 1962년생  
· 이화여대 종교음악과, 동  
대학원, 미국 노스캐롤라  
이나 대학  
· 현 평택대 강사

## 안수집사 · 권사 추천 방식 개정하다

교회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안수집사와 권사 추천 방식을 개정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 유익이 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 <현행>

1. 규정집에 있는 요건을 갖춘 자
2. 제직회에서 배수공천하여 (권사는 당회 추천으로)
3. 공동의회에서 1/2 득표자 중 종다수로 결정함

### <개정>

1. 규정집에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중
  2. 성경통독 수상자(소급적용)
  3. 전도10명 이상자 (매년 4월1일 - 익년 3월31일) 또는 전도학교 이수자(소급적용)
  4. 정규예배 출석자
  5. 십일조 생활자
  6. 봉사부서에서 섬기는 자
  7. 열린프로그램 중 1과목 이상 이수자
  8. 집사(또는 권사) 지원서를 제출한 자
- 이상 요건에 맞는 자를 당회가 심사하여 후보로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정한다.
- ※ 오는 11월 23일 안수 받을 예정인 피택자 6인은 안수 받기 전 2가정 이상 전도(등록)하여야 안수를 허락한다.

## 오르간 심포지움 준비위원회 조직되다

우리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여 오는 11월 21(금)부터 22일(토)까지 2일간 '국제 오르간 심포지움'을 열기로 하고 준비위원을 다음과 같이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장:** 민순구 장로  
**위원:** 목회자 세미나 봉사팀 전원

## 전도위원회 업무 분담키로

교회는 현재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 전도위원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담하기로 하였다.

### <현재>

- 전도부: 남순교회, 여전도회, 70인전도대, 농촌100교회 운동, 직능별 선교회, 여름 농촌 전도대
- 선교부: 선교사, 해외 단기선교팀

### <개정>

- 전도부: 남순교회, 여전도회, 70인전도대, 여름 농촌 전도대
- 선교부: 선교사, 해외 단기선교팀, 농촌100교회 운동, 직능별 선교회



# 2003 사명자 대회를 준비하며



김은호목사(사명자대회지도)

서울교회는 1991년 교회 설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눈물로 마루바닥을 적시었고, 기도로 시작한지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일 전 50일 동안 사명자 대회를 전개하면서 온 성도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었고 전도의 사도가 되었다. 올해 12번째가 되는 '2003 사명자 대회'는 다음 주일(10월 5일)에 시작하여 11월 23일(주일)까지 지속된다.

올해 주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롬

4:18)로 정해졌다. 이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해체주의가 만연되어 가치관이 파괴되고 신앙이 흔들리는 현 세대에서 교회가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사명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함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북한 핵 문제로 인하여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자 함이다. 그래서 올해 표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자"로 정해졌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은 금년 사명자 대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위기의 한국과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50일 연속기도와 다니엘 기도예에 적극 참여하게 되며, 가

족이나 이웃의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기도로 잉태하고(태신자 잉태) 태신자 초창주일(11월 16일)에 교회로 초대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태신자 출산). 또한 말씀전치인 특별 새벽기도회(11월 10일(월)-22일(토))를 위하여 이종운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로 소망하다가, 잔치 날에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제공된 말씀의 떡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그 외에도 노방전도와 잃은 양 찾기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2003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마루바닥을 적시며, 말씀의 은혜에 온 몸이 잠겨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많은 전도의 열매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한다.

##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자

심명숙 집사(1교구)



70인 전도교육 6기를 은혜롭게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교육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는 말씀을 좇아 계속적으로 70인 전도대 활동과 개인

적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며 교회 인근 지역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도를 하며 때로는 주민들과 경비아저씨들로부터 냉대와 배척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당연히 겪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오히려 최대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예의를 지키려고 기도로 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와 함께 하고 하던 대치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알게 되어 그 아이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의 어머니가 자신들은 불교신자라고 하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꾸준히 기도하며 방문하며 성경 말씀을 전하며 편안한 이웃으로 교제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얼마 있다가 아빠와 함께 다섯 식구가 예배 참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이 서울교회에 등록을 한 후 때문에 '불자의 집'이란 패를 떼어내고 '서울교회' 교패를 붙이던 날은 정말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청실아파트 축호전호를 하다가 알게 된 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두 살배기 아들이 있는 그 가정 역시 불교신자였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 찬양대를 소개하며 전도를 하다가

마침내 지난 7월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아빠는 어린 아들을 보아야 한다는 핑계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으나 딸들이 찬양대에 서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곧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주일예배 뿐 아니라 수요일 어린이 예배에도 참석하여 찬양대에 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전도자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도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전도 교육을 받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0월5일(주) 1부 예배 후 601호실에서-

이제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고3 학생 1명당 우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학부 선배, 고등부 후배, 담임교사 등 8명이 기도 결연자가 되어 1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학기 초 기도 결연하여 4월 1일 주일 기도결연 예배를 드리고 1차 기도회를 가졌고, 수능시험 한 달 전인 10월 5일 주일 2차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고3학생들과 기도 결연이 되어 1년 동안 많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 수능시험일 까지 한달 남은 기간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마무리 잘 하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주일(10월 5일) 1부 예배 후 고등부 분반 성경공부 후인 10시 40분에 601호 고등부실로 방문해 주셔서 고3생들과 재수생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3 동생들에게

박지원(대학부)



요즘은 바람이 참 시원해졌다. 어느새 가을이구나, 시간이 참 빠르네.

작년엔 내가 그랬는데, 초조함 속에 지내는 하루하루가 힘겹던 그때가 기억이 나.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사람들의 말이 어찌나 부담스럽던지 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는지.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인 듯하다. 작년엔 내가 그랬고,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너희도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길.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나도 항상 기도할게.

이젠 얼마 안 남았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지? 또 항상 감사하고, 내년엔 너희도 나처럼 후배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선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날이 서늘해지는데, 감기 조심하고. 힘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천절을 앞두고-

# “단군상 문제 어디까지 왔나?”

오는 10월 3일은 우리나라 국경일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개천절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새삼 의문스러운 것은 왜 개천절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돼 있는지, 무슨 이유로 개천절을 해마다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개천절은 단군기원의 원년이라고 하는 B.C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고 한다. 단군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대종교에서 “개천절”이란 명칭을 지었고 1900년부터 해마다 종교행사를 열었다. 이것을 일제강점기 때 상해임시정부가 민족의식을 고취 한다는 명분으로 발전 시켜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공식 행사를 열더니, 광복 후엔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며 1949년부터 국경일로 정식 제정을 해버렸다. 신도 수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종교에서 만든 그들만의 기념일을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정해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래 들어서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98년부터 한 사설단체가 통일을 기원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280여 학교와 공원 등에 총 369개의 단군상을 건립한 것이다. 교계는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전국 곳곳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 성명과 집회가 이어졌다. 단군의 실체가 학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실존성이 희박한 신화속의 인물임에도 그 상을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세워 참

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적인 도움은 커녕 오히려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 교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단군은 특정 종교의 교주이므로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특정 종교의 유포를 위한 세뇌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이 운동을 추진한 단체인 흥인문화운동연합(구 한문화운동연합)의 대표는 단군 숭배를 표방하는 단학선원의 창립자여서 다분히 종교적인 의도가 짙음을 알 수가 있다.

단군상 설치에 대한 교계의 반대 운동은 지난 99년 7월 10일 기독교 단체장과 총회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단군상 건립반대 대책위원회 발족으로 조직화된 이래, 전국적으로 단군상 철거 기도회와 집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군 숭배 진영은 현재 단군상을 추가로 세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단군상이 전국에 3백여 개가 존치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단군상을 만들어갈 계획이어서 교계의 대책과 기도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단군상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이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끊임없는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겠다.

김민철(편집부)

##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

대풍 매미의 피해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수재민 돕기에 청년부가 발 벗고 나섰다. 오는 10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수해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가기로 결정한 청년부는 수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고 복음도 전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면서 복음전파를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온 청년부는 대부분의 청년회원이 직장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공휴일을 맞아 구제와 선교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는 수해지역의 피해 복구와 수재민의 마음의 복구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차량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자비로 충당하게 되며, 방문지역은 농어촌 후원교회 및 기타지역으로 좁혀지고 있다.

청년회원과 성도님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미군장병 한국 가정 초청 행사 11월27일(목)에 갖기로 해

우리교회는 추수감사절(11월27일 목요일)에 한미 우호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미군 장병 한국 가정 초청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미군장병 한국 가정 초청 행사는 당일 저녁 식사만 대접하고 8군 정문까지 인도해주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작은 선물도 가능하다고 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0월 3일(금) 한국농아인 선교회 주최 전국 자원봉사자 수화찬양대회에서 격려사를 한다.
- 승전: 임흥수 집사 현대자동차 해외영업부 상무로 승진 발령
- 금주의 식사: 이혜련 집사 가정 (남편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보류

제88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가 제시한 번역문에 대해서는 최상의 번역으로 칭송을 하면서도 타 교단과의 연합 운동이 방해 받지 않기 위해 타 교단과 협의를 추

진키로 하고 총회는 공식적 채택을 보류키로 했다. 따라서 이종윤 목사는 장로교 신학회와 한기총 등을 통해 연합전선을 펴서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 안식장로 재신임 · 부목사 재신임 · 휴무장로 시무허락 협동장로 청빙 받기로 하다

우리교회 당회는 2003년 안식장로(최중시, 윤봉준)와 부목사 8분의 재신임과 휴무장로(홍정호, 김대호, 김상철) 시무 허락과 교회규정에 따라 협동장로(이재권, 이갑진) 청빙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갖고 안식장로와 부목사 전원을 재신임하고 휴무장로 세 분의 시무와 협동장로 두

분의 청빙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한편 휴무장로 세 분은 오는 10월 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시무를 위한 서약식을 갖게 된다. 안식장로와 휴무장로, 협동장로들은 11월 23일부터 섬기게 된다. 이들이 은혜 중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사명자 대회에 큰 은혜있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